

## 전은비

제목: 여호와 우리 주여

대지: 사람이 무엇이기에 /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이름

요약: 보잘 것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어 온 땅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

시편은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본문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찬송, 죄에 대한 슬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함, 경외와 신뢰, 하나님의 동행함, 하나님의 보살핌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 등 다양한 감정과 고백을 표현하기에 시편은 수 많은 찬양의 가사에도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딛에 맞춘 노래’입니다. ‘깃딛’이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학자들에 의해 음악의 장르이거나 하나의 악기로 추측되어집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찬양을 담아냅니다.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두 가지의 칭호로 시를 시작합니다. 먼저 ‘여호와’라는 호칭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즉 성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우리 주, 아도나이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두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고 하는 표현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온 땅에 가득 있다는 말로 오늘 본문 8편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밤 하늘의 달과 수 많은 별들이 있는 광활한 세상을 보면 인간은 자신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광대한 우주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작품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찬양의 대상이심을 더욱 분명히 나타냅니다.

거대한 자연에 비해 너무나도 미약하고 하찮은 존재인 인간 그리고 그 광활한 자연을 손가락으로 만드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비교하며 인간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 것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광대한 우주 앞에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들고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광대함 속에서 인간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편 기자는 광활한 자연과 세상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나님과 인간을 대조하며 시를 읽고 듣는 독자와 회중으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절망감이 생기도록 만듭니다.

이어서 나오는 5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기록합니다. 일부 역본에는 하나님이 아닌 ‘천사들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 기록되었지만 이는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는 표현이 터무니없는 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 기록된 번역이 옳다는 것이 거의 확실한데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배권을 피조물인 인간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는 표현은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주인 하나님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즉, 피조물된 질서 속에서 인간에게 맡기신 다스리는 지배자로서의 역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주신 지배권은 7-8절에 나온 것처럼 가축들과 야생동물 뿐 아니라, 물고기와 새, 바다의 생물까지 해당됩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찬양으로 동일하게 끝맺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 것 없는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위임 받은 아주 중요한 역할에 해당하는 존재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어느 대상을 탐색하고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 하곤 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이 짙막한 시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 압도될 수 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 같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부터 사람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보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시어 사람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드신 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명하시며 통치권을 맡기셨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온전하지는 못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지배권을 주셔서 사람보다 훨씬 크고 장엄한 자연을 사람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제목: 진정한 안식의 의미

안식일의 주인 / 생명을 구하는 안식

요약: 유대인들이 만든 안식일 관련 율법을 잣대로 예수님을 정죄하는 이들에게 안식의 참된 의미를 말씀하시고 보이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못 마땅해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것과 죄인들과의 교제 그리고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 등으로 예수님을 비판적인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교훈을 새 옷과 새 포도주에 그리고 구약 율법에 기반한 전통적인 유대 종교의 사상을 헌 옷과 낡은 가죽부대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비판하는 주도 세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즉, 종교 지도층이었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율법에 매이는 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작용했는데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70년의 포로기에 백성들은 왜 이런 상황이 주어졌는지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겼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율법을 익히고 지키는 것이 강조 되었고 서기관이라는 직분도 이때 생겼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한 열심이 과한 탓에 유대인들은 율법에 세부조항을 덧붙여 자신들만의 규칙을 만들어내고 이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 중 하나 이들이 비판한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지 말라’였습니다. 하지만 전통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추수와 타작을 하지 말라’라는 세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빈 행동은 이들이 말한 추수와 타작의 행위 였기에 정죄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반문하심으로 제자들을 보호하셨고 안식일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다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과 그와 함께 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윗 일행이 사울에게 쫓길 때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배가 고픈 때 하나님께서 아론와 그의 자손(제사장)에게 주신 진설병을 먹었지만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율법을 외우다시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안에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법 정신도 알지 못했고 문자 그대로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며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윗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권위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비벼 먹은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주인 되심을 ‘말씀으로’ 밝히시고 이어 오른손이 마른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권위를 ‘행동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는 이들에게 행동으로 보이시는 것은 공적으로 고소할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알고 계심에도 분명한 교훈을 주기 위해 행하셨습니다. 안식법이 선을 행하기 위함인지, 악을 행하기 위함인지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인지, 생명을 멸하기 위함인지 더 나아가 율법은 구원을 위한 것인지, 멸망을 위한 것인지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고 구원을 위해 주신 율법을 자신들이 만든 규칙까지 덧붙여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요용하고 있음을 밝히신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체에 몰두하여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단순히 지키는지 혹은 지키지 않는지에 대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율법을 주셨듯이 오늘의 말씀 또한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함임을 깨닫고 누리며 지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목: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요약: 율법의 조항을 잣대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자가 되기

앞선 9장 후반부와 10장 전반부까지 제자들의 의무와 특권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 다음 오늘 본문인 10장 후반부에서 11장 전반부까지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 줍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한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울무에 걸려 넘어뜨리기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을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율법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되 질문함으로 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란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제시하시며 제자에 대해 추상적인 신학을 넘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이웃 사랑이란 자신이 원하는 특정한 부류를 택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도와주고 이웃이 되어 주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사마리아인을 스토리에 넣으신 것은 당시 유대 종교에서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방 족속과 결혼하여 대를 이은 혼혈인이며 이방 신들의 문화와 어울려 사는 배교자로 여겨진 사마리아인은 긍휼을 베풀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대상으로 보여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직분처럼 그들의 삶 또한 거룩하고 선하여 주변에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종교가 부패할 대로 부패하여 제사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을 성전에서 더 많은 돈을 벌고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 성전세로 사용하던 화폐가 아닌 일반 화폐로 거래를 하였고 많은 부가 이들에게 편향되었습니다. 종교 만큼이나 사회도 부패해 저가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본문 속 강도만난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곳은 여리고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여리고에 있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하는 길이었습니다. 강도들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달려들어 해하기도 했지만 다친 이를 밋으로 놓아 또 다른 누군가와 와서 살피고 돌보는 사이에 강도들이 들이닥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직접적으로 집전하여 돕고 섬기는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은 사람에게 손을 데어서는 안되었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고 일정기간동안 직업을 이행하지 못하는 정결기간을 보내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정황을 살펴보면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이를 지나쳐 간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반응이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어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친 이를 살펴보고 상처를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 소독하고 자신의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주고 혹시 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을 대비하여 주막 주인에게 부탁하며 후에 더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누군가를 어떻게 돕는지가 아니라 누가 돕는지입니다. 이 일을 사마리아인이 행하였다는 표현은 다소 충격적인 비유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푸는 자”라고 답하고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를 온전히 행할 인생이 없음을 반어법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졌듯이 은혜 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목: 이 땅에 오신 이유

잃어버린 자 / 찾아 구원하심

요약: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은 하나님의 만지심과 회복하게 하심을 더욱 갈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누린 이는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세리 조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래 세리들이 세금을 징수하고 거둬들였고 세리장인 삭개오는 조직을 운영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리직은 백성들에게 높은 세금을 징수하고 그 중 일부를 중간에서 벌어들였기에 이들을 향한 민심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니다.

예수님께서 여러고로 가실 때 삭개오는 소문으로만 들던 유명한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고 비슷한 마음으로 모인 군중들 사이에 유독 키가 작은 삭개오는 근처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삭개오를 예수님은 이미 아셨고 그에게 나무에게 내려오기를 말씀하시며 오늘 그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세리직을 가진 이들은 더욱 회개가가 필요한 죄를 지은 이들로 여겨졌습니다. 백성들도 하대하는 세리직을 가진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은 친히 부르시고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세리, 몸에 병이 있어 부정한 자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포기해버린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시며 의롭게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남들의 인식처럼 죄인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회복케 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연약함과 죄됨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가깝도록 그를 더욱 갈망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갈급해하고 소원하는 이들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를 포함하여 더욱 죄인이고 더 부정했던 이들은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만나주심을 경험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삭개오는 그가 지금 까지 축적해오던 어찌면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했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줄 것이며 불의한 방법으로 취한 재산이 있다면 4배로 갚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누린 그는 그가 평생토록 목적으로 삼던 재산의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바로잡기를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변화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며 그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표현하게 됩니다.

이제 삭개오의 인생은 삭개오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바를 수행하는 청지기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랑을 누릴 수록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사랑함을 나타내도록 합니다. 당시 율법이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으로 이웃에게 재산 나누어 주기를 소원하고 결단한 삭개오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섬기는 삶이 아닌 주를 섬기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삶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